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S/W로 세계 진출 모색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학교나 기업에서는 새로운 골치거리가 생겼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포르노, 폭력 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에 오락, 도박 등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런 접속은 학교나 회사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런 유해정보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유해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인 넷아르고스를 개발해 해외수출을 모색중인 플러스 기술을 찾아가 개발배경과 제품기능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민식 기자>

아르고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신이다. 한마디로 넷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을 가진 네트워크상의 유해정보 차단 감시자인 것이다. 플러스 기술은 1998년 3월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회사이다. 제1회 대학생 창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설립한 벤처기업이며 현재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윈도우 95용 NetArgus 1.0를 발표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일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플러스 기술은 넷아르고스 개발의 주역인 박형배 기술팀장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박배경 사장의 6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플러스기술의 박배경 사장은 "인터넷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음란물의 범람, 걸리지 않는 폭력,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플러스 기술이 개발한 넷아르고스는 청소년이나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음란, 폭력, 도박, 마약 등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네트워크용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라고 소개했다.



<그림 1>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 화면

중소규모의 네트워크에 적합

최근 학교 또는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향해가 보편화되면서 유해정보 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화벽이나 프록시 서버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동작하는 기존의 관리자용 유해정보 차단제품은 고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설치 및 운영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가진 학교 또는 도서관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플러스 기술이 개발한 넷아르고스는 관리자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도 기존의 시스템에 사

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서 LAN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대해 유해정보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법의 제품이다.

넷아르고스의 실행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즉, 학생이나 회사원이 근무시간에 가지말아야 할 사이트를 DB화하여 등록한 후 사용자가 등록 사이트에 접속할시에 차단 메시지가 뜨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차단장치 대신에 컴퓨터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상황을 파악하여 알려줌으로써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며 PC용 유해정보 차단 제품과는 달리 네트워크 내에 1대만 설치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관리자 외에는 유해정보 차단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용 컴퓨터에만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임의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플러스 기술은 인터넷 유해정보를 11가지 카테고리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접속허용 여부를 관리자가 사용자의 나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시간에 따른 제한도 가능하여 부재시나 심야시간의 유해정보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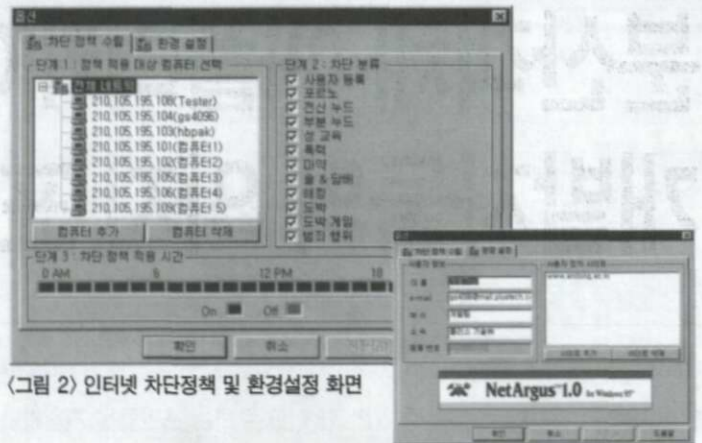
세계시장을 향하여

박 사장은 "넷아르고스는 다양한 고급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가격은 다른 관리자용 제품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므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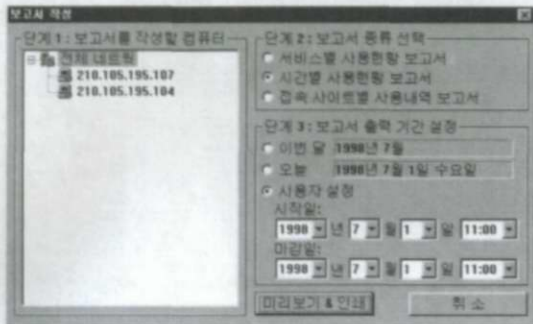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유해 소프트웨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그 제품도 10여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의 국가는 미국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 사이트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제품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비싼편이므로 박 사장의 말대로 넷아르고스의 세계시장 진출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플러스 기술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그림 2〉 인터넷 차단정책 및 환경설정 화면



〈그림 3〉 보고서 작성 화면

판단하고 자체적인 DB 구축 툴을 갖고서 지속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차단목록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 2만 5천개 이상의 유해정보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트 목록 구축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전담 요원을 통해 새로운 유해사이트가 생기는 즉시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업데이트 버튼을 선택하여 차단 목록을 최신목록으로 갱신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개인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재의 관리자용 제품외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플러스 기술이 제공하는 넷아르고스 1.0 평가판은 플러스 기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plustech.co.kr>)